

## 임치현·이경호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스승의 날 유공교원'

임 교수, AI 응용 지도·데이터과학 경진대회 성과  
이 교수, 실무형 AI 교육... 다학제 연구 경험 제공

커뮤니티

📄 권익만 | 📅 2025.05.15 | 👁 5233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임치현 산업공학과 교수와 이경호 디자인학과 교수가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산업공학과 김선욱 학생 추천을 바탕으로 이뤄져 의미가 깊다. 두 교수는 산업 실전형 교육을 실현한 공로로 '스승의 날 유공교원'에 선정됐다.

임치현 교수는 인공지능대학원 창의자율과제를 이끌며 학생들에게 AI 응용 연구 경험을 제공했다. 다년간 'UNIST-KAIST-POSTECH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 참가 학생들을 지도해 우수한 성과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중심대학에서 교육과 실전의 선순환을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임치현 교수(앞줄 가장 오른쪽)는 산업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임치현 교수(앞줄 가장 오른쪽)는 산업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임치현 교수(앞줄 가장 오른쪽)가 산업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 Related Links

- [\[관련 기사\] 산업공학과 김선욱 학생,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주인공](#)

On the occasion of the 44th Teachers' Day, Professor Lim Chihyun of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Professor Lee Kyungho of the Department of Design received commendations from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on the 15th.

This commendation holds deep significance as it was based on a recommendation by Kim Seonwook,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two professors were selected as "Meritorious Teachers for Teachers' Day" in recognition of their realization of industry-practical education.

Professor Lim Chihyun led creative autonomous projects at the Gradu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viding students with experience in AI application research. For many years, he has also coached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UNIST-KAIST-POSTECH Data Science Competition," achieving outstanding results. Based on these efforts, he has been cited as an exemplary model of implementing a virtuous cycle between education and practice at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그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쓰이는 지식·기술 교육을 강조해 왔다. 또,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학생들의 특허 명세 작성과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을 도우며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임 교수는 “스승의 날 유공표창을 받게 돼 선생으로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문제 정의와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UNIST에서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교수는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멘토링을 받은 김선욱 학생은 국내 학술대회 2편, 국제 컨퍼런스에서 1편의 1저자 논문을 발표하며 AI 콘텐츠 전문 기업에 채용됐다.

이 교수는 연구, 교육, 산업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창출했다. 그는 AI 기술로 창작자의 창의성을 유지하면서 만화 창작의 노동집약성을 해결하는 창작도구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진로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IT 기업과 창업 경험에 기반해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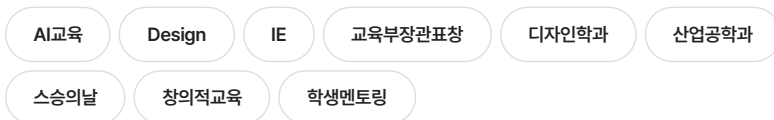
이경호 교수는 연구, 교육, 산업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경호 교수는 연구, 교육, 산업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경호 교수는 연구와 산업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교수는 “UNIST에 부임한 지 6년 만에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그 첫날의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초학제적 관점에서 창발적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파이오니어가 중요하다”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멘토십을 지원해 산업과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 리더를 길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장관 표창을 받은 두 교수의 공통점은 학생의 꿈과 관심을 존중해 왔다는 점이다. 이들이 헌신한 학생 중심 교육이 UNIST 인재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 Topic



Professor Lee, Kyungho was recognized for his exceptional leadership. Student Kim Seonwook, who received his mentorship, published two first-author papers at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and one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as subsequently hired by an AI content specialist company.

Spanning research, education, and industry, Professor Lee has created future value for his students. He led the development of creative tools utilizing AI technology to alleviate the labor-intensive nature of cartoon creation while preserving creators' creativity. In particular, he has dedicated himself to offering tailored counseling and solutions to students experiencing career confusion, drawing on his own experience with global IT companies and startups.

Professor Lee has been creating future value for his students through education that bridges research and industry. "It is an honor to receive this major award six years after joining UNIST. I will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initial resolve I had on my first day here," Professor Lee said. He vowed, "In the age of AI, pioneers who can generate emergent ideas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nd execute them boldly without fear of failure are crucial. I will foster future leaders recognized in both industry and academia by providing student-centric education and mentorship."

The common thread linking the two professors who received this ministerial commendation is their respect for their students' dreams and interests. Their dedicated student-centered education is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UNIST talent.

< [목록으로 돌아가기](#)

## Related Articles

